

자료제공 : 2023. 3. 12.(일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

| | |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안전지원과장 | 안형준 | 2133-8515 |
| 안전지원팀장 | 황성원 | 2133-8517 |
| 담 당 자 | 이석중 | 2133-8519 |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쪽수 : 3쪽

서울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한파주의보 발효...서울시 한파 대비 비상근무

- 3월 12일(일) 21시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
- 노숙인, 쪽방주민,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, 순찰강화 조치 시행
- 서울시 사회관계망(SNS), 긴급재난문자 등 활용해 한파 시민 행동요령 신속 전파

□ 3월 12일(일) 21시 서울지역(동남권, 동북권, 서북권)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-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,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.

- 동남권(4) : 강동구, 송파구, 강남구, 서초구
- 동북권(8) : 도봉구, 노원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- 서북권(6) : 은평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종로구, 중구

□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, 생활지원반, 시설 복구반 등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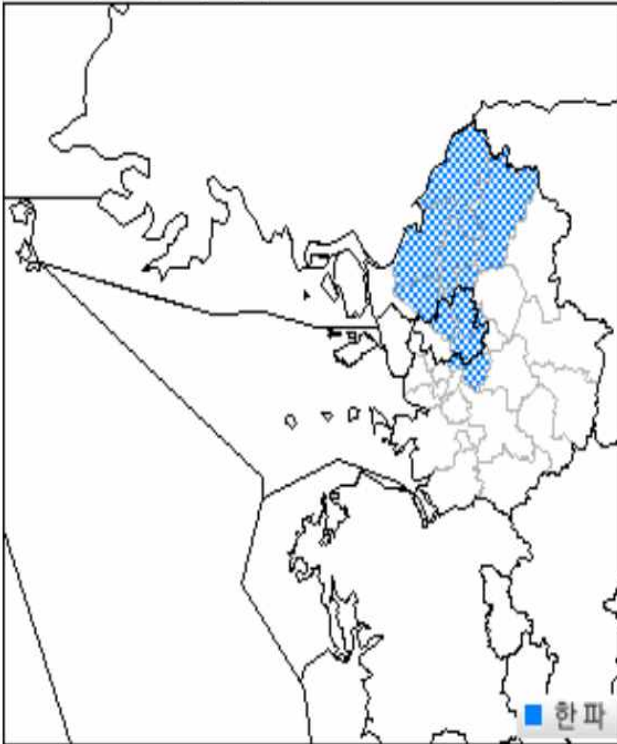
-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, 피해발생현황,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.

- 18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·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.
- 서울시는 사회관계망(SNS)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였다.
- 모바일 ‘서울안전누리’ 및 ‘서울안전앱’을 통해 한파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 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다.
 - ※ 서울안전앱(구글플레이, 앱스토어 다운로드) 서울안전누리(www.safecity.seoul.go.kr)
-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전화와 미수신 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,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·밀반찬 배달 추가와 거리노숙인 상담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져 영하의 추위가 예상된 만큼, 시민 여러분들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보온 유지 등 건강관리와 수도동파 방지,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

붙임

기상청 기상특보 ('23. 3. 12.(일) 10시 발표)

특보 발표구역 (2023.03.12. 10:00)



특보 발효현황 (2023.03.12. 21:00 이후)

